



이슈 파이팅·정책 대결 '실종'...광주·전남 유권자 '실망'

민주당 경선후 '맥 빠진' 선거전...고소·고발·네거티브 난무
군공항 이전·전남권 의대 등 '광역·초광역 현안' 전략 전무
정치력 기대 난망...총선 이후 지역 간 갈등 심화 불가피

4·10 총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광주·전남지역에선 이슈 파이팅이나 정책 대결을 찾아보기 힘든, '맥 빠진 선거전'이 이어져 유권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책·공약·인물 경쟁은 실종되고 오로지 상대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에만 열을 올리는 등 구태가 재연되면서 지역구 선거보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해 관계가 확연히 엇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전남권 국립의대 문제 등에 대해 큰 틀의 해법을 찾으려는 민주당의 어젠다 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에만 매몰돼 광역·초광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총선 이후 지역 간 갈등·반목 심화를 조장하는 것이 나날이 비판까지 나온다.

후보자들이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것은 정책·공약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보다, 당장 상대방을 흠집 낼 경우 반사 이익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선거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선거일이 다가올 수록 상대방에 대한 비판 수위는 높아지고 있고 각종 의혹 제기하고 소모적 공방이 잇따르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선관위(2일 기준)의 위법행위 조치 사항은 고발 6건, 수사의뢰 1건, 서면경고 15건 등 총 22건이다. 전남도선관위(지난달 31일 기준) 역시 고발 11건, 경고 22건 등 위법행위 33건을 조치했다.

광주경찰청에도 총선 관련 고소·고발이 41건(57명)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8건 44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당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의 경우 '공천=당선' 공식이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



사전투표소 설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 1층에 마련된 용평동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기표소와 투표함 등을 설치·점검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면서 본 선거 때에는 오히려 후보자들의 활동 폭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정당 조국혁신당을 주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함께, 김 빠진 선거전

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게다가 민주당이 광주·전남 공약을 제시했지만 지역 현안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데 마문 데다, 광역·초광역 사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법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21대 총선 이후 군공항 이전이나 전남

권 의대 문제와 관련,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거시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돼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의 중심에 섰다는 점을 감안할 때, 22대 총선 이후에도 또 다시 '정치력 없는 지역 정치권'의 모습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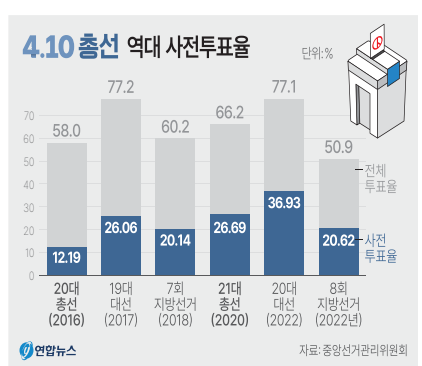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본인 선거구의 소소한 민원 해결 못지 않게, 광역 문제에 대한 고민과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22대 때 드러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가 앞으로 4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재정·박선강 기자

총선 D-5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신분증 지참 필수

광주 96개·전남 298개 사전투표소...오전 6시-오후 6시
21대 광주 32%·전남 35% 기록...22대 사전투표율 촉각
관외 투표시 '회송용 봉투' 반드시 봉합 투표함 넣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6일 이틀간 광주·전남 394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지역 내 사전투표소는 총 3천566개가 설치됐다. 특히 2020년 21대 총선 당시 광주(32.18%)·전남(35.77%)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26.69%)보다 월등히 높았던 만큼, 22대 총선

광주·전남지역 사전투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 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 때는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 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와 달리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기표한 뒤 투

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무효표 방지를 위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경찰과 동반해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인 4월10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 별도 신청 없이 사·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1곳을 선정해 사전투표함 이송과 보관 과정을 홈페이지·공식 유튜브

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국 3천566개 모든 사전투표소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출입문과 창문을 폐쇄하는 등 사전투표 준비를 마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김재정 기자

4월 5일 GRAND OPEN

중양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2-2BL 중양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2-1BL

중양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BL

모두가 기다린 단 한자리 중양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오픈경품 EVENT

응모방식 키오스크 응모 목적 추정 확인 응모일 1차: 4/5(금)-7(일) / 2차: 4/13(토)-14(일)	
당첨 경품 1등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4도어 4등 삼성 비스포크 전자레인지	2등 삼성 QLED 85" TV 5등 전기포트 3등 삼성 비스포크 에어드레서

* 당첨자를 제외한 소액의미의 응모금 지급 및 상품 수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4차 추첨(2024년)은 소액의미입니다. * 당첨된 본인명(우편)을 확인합니다. (예) 1등: 26,361명

1BL / 2-1BL / 2-2BL 3개 블록
84~233㎡ 총 2,772세대

1660-2772

* 분양대상: CG 및 사민주의자(신혼, 중년) 등 1인 가구 및 2인 가구(신혼, 중년)가 적합합니다.

유니콘 파트너: 빛고을중양공원개발 시행: KAIT 한국자산신탁 분양: 롯데건설 분양처: BARON